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권상연 유해 발굴



권상연 묘지에서 발굴된 백자사발 지석誌石, 학생권공지묘學生權公之墓 휘상연諱尙燃 지경상字景參 신미생辛未生 본 본 안동安東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다.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첫 번째로 순교했던 권상연(權尙然, 복자, 세례명 야고보, 1751~1791)의 유해가 지난 3월 발굴되었다고 9월 1일 한국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발표했다. 전주교구에서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를 성역화하는 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다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이 3호, 5호, 8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3호 무덤에서 발굴된 유해는 목 부위와 머리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뼈들이 발견되었고, 묘지에서는 백자사발 지석(誌石)이 발견되었다. 전주교구에서는 3호 유해 감식 결과 유해의 성별은 남성이고 유해의 신장은 152.5 ± 3.8cm이고, 유해의 나이는 25~45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권씨 친족 사이에 동일 부계(父系)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볼 때, 이번 3호 묘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1791년 신유박해 때 참수형으로 순교한 복자 권상연 야고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를 230여년 만에 찾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권상연(야고보)의 세계도를 안동권씨 족보에서 살펴보니 그는 주밀공파 정헌공계의 후손으로 나타난다. 14세 왕후王煦 - 15세 왕중귀王重貴 - 16세 숙肅 - 17세 순愼 - 18세 실實 - 19세 령齡 - 20세 대사헌공 홍弘 - 21세 증좌참찬 덕 유德裕 - 22세 감역공 국완국寬 - 23세 만회공 득기득己 - 24세 탄옹공 시諱 - 25세 무수옹 기禧 - 26세 이현以鉉 - 27세 기정沂徵 - 28세 세학世學 - 29세 상연尙然

권상연의 유해와 함께 5호 묘지에서 윤지충(尹持忠, 바오로, 1759~1791)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굴되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고종사촌 간이다. 윤지충의 어머니가 권상연의 고모 권조이 님이다. 권상연은 학문에 정진해 오다 윤지충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 고모와 함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그때가 1787년 무렵이었다. 윤지충은 정약용과 외종육촌 간이 된다. 그래서 다산을 통해서 서학을 접했다는 설도 있고, 정약용의 매형이자 한국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으로부터 배웠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정약용의 큰 형 정약현의 사위인 이벽을 비롯해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셋째 형 정약종 등 한국 천주교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편집국장 권영환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80% 진척 보여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공사가 공정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8일 오전 10시 권숙동 안동종친회 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용주 태사묘관리위원회 부위원

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종회 회장 등 4명이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에 위치하고 있는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 지난 7일 오후까지 가을비가 내린 바람에 공사 현장에는 중장비만 있을 뿐 공사가 잠시 중단된 채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권숙동 회장 등 일행 4명은 그동안 공사를 시행한 진입로 길이 400m, 너비 2~3m를 둘러 보기 위해 길을 따라 올라갔다. 진입로 왼쪽에는 크고 작은 자연석 석축을 2~3단으로 쌓아 놓았고 길 위에는 모



래흙을 깔았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에는 배수관을 묻었으나 진입로 오른쪽은 손을 대지 않았다.

진입로 공사 현장을 둘러본 일행들은 현재로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 앞으로 현장 책임자와 안동시 관계자를 만나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업은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경 마칠 예정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시중공파 문순공 중증 ‘권상하 초상’ 등 유물 제천시에 기증

안동권씨 시중공파 문순공 중증에서 권상하 초상을 비롯한 총 7점의 유물을 제천시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유물은 권상하 초상 및 초본, 송시열 초상, 한원진 초상, 권옥 초상, 윤봉구 초상 등으로 초본을 제외한 5점의 초상화는 모두 201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송시열 초상은 제천시가 보존·관리하던 중 지난 6월 23일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권상하 초상 및 초본이 보물지정 심의 중에 있다.

유물을 기탁한 한수재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후손인 안동권씨 시중공파 문순공 중증은 2005년부터 초상화들을 기탁받아 관리 중인 제천시에 “문화유산은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들어 기증 의사를 밝혔다.



권순우 선수, ATP투어 아스타나오픈 우승

한국 남자 테니스의 기대주 권순우(24·당진시청·세계랭킹 82위)가 생애 처음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대회 단식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2003년 1월 이형택(45·은파)이 아디다스 인터내셔널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18년 8개월 만에 ATP 투어 단식을 제패한 한국 선수가 됐다. 권순우는 26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ATP 투어 아스타나오픈 단식 결승전에서 제임스 더크워스(29·호주·65위)를 세트스코어 2-0(7-6(8-6) 6-2)으로 이겼다. 권순우



선수는 권만집 전 상주종친회장의 장손자이다.

동정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VR AR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수립 등 VR AR 규제 개혁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권기석 과장은 권오협 충주종친회 회장의 큰 아들이다. 권기석 과장의 할아버지는 충주향교 전교를 역임하시고 양촌 권근의 문종공종중 회장을 22년간 역임하였으며 추밀공파 대보 발간 시 재정도유사 책임을 맡았던 송조정신이 투철한 분이셨다. 동생은 삼성SDS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들 순성은 세종시과학영재고등학교에 합격하여 내년 3월에 입학한다.

▲권오경 한양대학교 석좌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오경 교수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LED, AMOLED) 관련 연구 노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와 대형 TV용 AM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개발에 각각 성공해,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기여했다. 권 교수는 권위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 등에 총 545건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국내 특허 310건과 미국 특허 228개를 포함하여 418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및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펠로우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학술 활동하고 있다.

▲권두현 경기도행정동우회장이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익 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8년 1월 설립된 특수법인단체이다. 중앙회 산하에는 18개 시·도 지회와 228개의 시·군 분회가 있다. 권 회장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18대 경기도행정동우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3회 연속 연임에 성공했다.

▲권상준 티에스이 회장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40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의 산증인으로 유명하다. 권 회장은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반도체와 처음 인연을 맺고 5년간 근무한 후 1994년 충남 천안에 직원 1명과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 티에스이는 메모리반도체인 낸드플래시용 프로브 카드 국내 1위, 세계 2위 기업으로 발돋움했고, 코스닥 상장사다.

▲권인찬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바이오치료를 개발해 지적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1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교수는 지난 1996년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바이오치료제 및 관련 기술을 개발, 국내·특히 40건 이상 출원·등록하는 등 버지니아 주립대학 조교수, GIST 교수에 이르는 동안 신약개발 지적재산을 기술 이전하며 바이오치료제 기술 사업화에 직접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재산 유공자로 선정됐다.

▲권택조 ㈜한얼누리 대표가 충북 단양군체육회에 10일 당선됐다. 권택조 회장은 당선증 교부식에서 “각 종목별 회장단, 체육회 직원 등과 화합·소통을 통해 단양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권택조 회장은 ㈜한얼누리 대표이사과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부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 단양골프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권 회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이다. 하남시는 김상호 하남시장이 고(故) 권형오 전 하남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선행시민 표창을 지난 9월 추서했다고 밝혔다. 8일 열린 표창 전수식에는 고 권형오 회장을 대신해 부인 최하나씨가 받았다. 이 자리에는 권 회장의 아들(오성)과 손주들(준혁, 찬혁)도 자리를 함께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각 대학교의 장기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교통 편리합니다)

◎ 연 락 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1천만원	70만원
원룸 3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1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2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3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4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3백만원	50만원

안동권씨 대종회